반려견과 공생하는 공동 주거 디자인 제안 -젊은 1인가구 사용자 중심으로

A Study of a joint residential design with a companion dog to the user-centered

허 유 리, 안 세 윤
한밭대학교

Heo Yuri, An Seyun
Han bat univ, Han bat univ

요약

핵 가족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도시 독거노인 및 독신인구가 급증합에 따라,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적 유대감을 얻기 위하여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나 문화적 의식과 공공 기반시설의 질적수준은 초기 단계수준이다.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며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도시 내 반려인 전용 주거 시설의 개념과 역할, 공동 주거 시설로서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찰하고, 새로운 공동 집합 주거 공간의 방향을 제안한다.

I.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핵 가족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도시 독거노인 및 독신인구가 급증합에 따라,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적 유대감을 얻기 위하여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나 문화적 의식과 공공 기반시설의 질적수준은 초기 단계수준이며,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며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도시 내 반려인 전용 주거 시설의 개념과 역할, 공동 주거 시설로서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찰하고, 사용자 니를 파악하여 새로운 공동 집합 주거 공간의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1인 가구의 개념 및 1인 가구를 위한 집합주거공간과 반려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유형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 다음 1인 가구를 위한 집합주거공간과 반려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페르소나와 페르소나의 니즈를 도출한 뒤, 공간계획항목을 파악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2.1 1인가구의 개념

1인 가구란 가족 구성원 없이 단독으로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즉 공간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남녀로 정의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젊은 층의 수도권 대학과 직장을 희망하는 도시인구 집중화, 결혼률의 감소, 황혼 이혼과 고령화, 핵가족 증가 등이 있다.

2.2 반려동물의 개념

pet이라고 불리던 동물들도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에 따라 그 존재의 의의 및 가치가 변화되고, 인간의 정서 및 육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새롭게 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가족으로서, 반려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육하자는 의지가 담긴 호칭이다.

2.3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주요 표적 층의 니즈, 행동패턴,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가상의 인물로 제시한다. 페르소나를 활 용하면 사용자의 동기와 행동 패턴을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동기를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반려인 31세 남자 김장군을 설정하였다.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1]에 기입하였다.

표 1. 페르소나-도심 주거 반려인

김장군 (31세, 남)	서울특별시에 거주, 회사원
반려견	달마티안 수컷, 2살, 중성화함
반려견과의 생활	· 반려견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 반려견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닌, 나의 가족이자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은 산책을 나간다. · 반려견으로 인해 이웃간의 마찰이 있었다.
Needs & Wants	· 반려견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반려견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 반려견과 살기 편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간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Ⅲ. 연구내용

[표2]는 반려견의 행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용자 니즈를 도출하여 도심 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 공간계획항목을 제시한 문헌에 대하여 연구 방법과 결론을 분석하였다.

표 2.

문헌 제목	연구방법	결론
애견문화를 고려한 '도그파크' 계획항목과 요구도(2005) 임수희, 이관규, 양병이	애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며 사례 및 문헌 분석을 통한 계획항목 도출하여 도그파크 계획에 필요한 항목을 분석	도그파크 계획항목을 종합한 결과, 자신의 반려동물이 맘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
도시 공원 이용자들의 애견전용공간 계획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연구(2010) 이형숙	국내외 관련기사 및 문헌의 고찰과 해외사례 검토 및 애견인들의 사육조건 및 애견운동현황과 애견의 공원출입 문제와 애견전용 공간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애견 사육자가 애견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애견으로 인하 비사육자의 눈치나 비난 또한 애견 산책의 장애가 되고 있음. 애견전용 공간 마련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애견 사육자들은 찬성의견을 표하였으며 비사육자 그룹 중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찬성함. 이는 애견전용공간 마련으로 인해 비사육자들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주요 원인이었음.

Ⅳ. 결론 및 디자인 방향

국내의 반려견과 반려인구 급증으로 공공 공간과 거주지역에서 일반인과 반려인의 마찰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숙하지 않은 동물복지 문화와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집합주거공간은 반려견, 반려인 그리고 일반인과의 심리적 상충이나 공간이용의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편리와 더불어 쾌적한 반려견과의 주거를 위한 집합주거공간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간 사례와 문헌분석 및 참여관찰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공생을 위한 집합주거공간의 세 가지 계획항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둘째,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반려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반려인은 휴게시설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휴식을 취하면서, 반려견은 주인의 시야 범위 내에서 맘껏 뛸 수 있게 하는 장소를 원하고 있다.

셋째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공간이다. 현재의 공원 등은 반려견의 산책이 허용되는 지역과 불허되는 지역의 구분이 없어 상시 마찰의 가능성이 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관련 시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반려인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반려견에게 심리적인 안정, 물리적으로 편리한 주거공간과 놀이공간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합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계획항목과 더불어 반려견 행동특성과 안전성, 보건성을 갖춘 시설물 도입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필요 지역에서 반려견과의 공생을 위한 집합주거공간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참여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전서영, 모정현 "애완견과 공생하는 공동주택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9-304, 2015.

[2] 이형숙, "공공시설로서의 공원 내 도그런에 관한 연구 : 동경 도시공원의 도그런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0(2), 139-152, 2009.

[3] 유민영, 김보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형성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의 서비스디자인 평가"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535-546, 2015.